

한국선사예술의 한 유형

—「얼굴」 조각품을 중심으로—

이 용 조

차 례

- | | |
|-------------------|---------------|
| 머리말 | ㄴ) 유문토기 문화의 예 |
| 1. 문제의 제기과 해석의 근거 | ㄷ) 거석문화의 예 |
| 2. 분석적 고찰 | ㄹ) 무문토기문화의 예 |
| ㄱ) 구석기 문화의 예 | 3. 제시되는 해석 |

머 리 말

최근 우리 고고학계에는 정밀한 조사와 발굴로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 내어 당시의 문화를 총체적인 면에서 해석하고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

이러한 데에서 그들이 남긴 유적과 유물을 통하여 본 당시의 생활은 지금까지 막연하게 생각한 미개하고 원시적인 생활상과는 다르게 상당히 높은 문화수준에 이르렀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유물 가운데 예술품은 이를 통하여 당시인들의 사유(思惟)에 관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끄는 것이다.¹⁾ 그래서 그들의 의식·생활습속·종교문제 등의 여러 방면에 관한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논문을 통해서 해석하여 왔던 것이다.²⁾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예술품들은 일반적으로 구분되고 있는 벽예술품(*art parietal*)과 휴대용 예술품(*art mobilier*)이³⁾ 모두 밝혀지고 있어 이제 조금씩 그 모습을 들어내고 있는 상태이다. 이를 통한 종합적 분석·고찰은 앞으로 있을 많은 조사에서 있게 될 터이나,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휴대용 예술품 가운데 조각품의 예를 들어 살펴서 그들의 사유에 관한 한 단면을 보고자 한다.

1) Marshack, A., 1975. "Exploring the Mind of Ice Age Man" *National Geographic* 47-1, 67.

2) 손보기, 1973. <石壯里의 후기구석기시대 집자리> 《韓國史研究》 11, 26~32; 1973. *The Upper Paleolithic Habitation Sökchang-ni, Korea: A Summary Report* 7~11; 1973. <舊石器文化> 《한국사》 1, 41~44; 1974. "Les Cultures Paléolithiques" *Revue de Corée* 6-1, 11~17; 1975. <제천점말동굴 발굴 중간보고> 《韓國史研究》 11, 13~14; 이용조, 1974. <팔당댐 수몰지역의 선사유물> 《人文科學》 32, 362~68; 1975. <양평 양덕리 고인돌 발굴보고> 《韓國史研究》 11, 77~78; 1976. <새로이 발견된 구석기 및 구석기전통유물의 몇 예> 《白山學報》 20, 11~12; 20~24; 박희현, 1975. <韓國 後期舊石器時代의 生活과 環境> 《동상서》 180, 90~94, 112~16.

3) Leroi-Gourhan, A., 1968. "The Evolution of Paleolithic Art" *Scientific American* 218-2, 59; Predeaux, T., 1973. *Cro-Magnon Man* (N.Y.: Time-Life Books) 95~97.

1. 문제의 제기와 해석의 근거

최근의 조사로서 밝혀진 휴대용 예술품 가운데에는⁴⁾ 「얼굴」을 나타낼려고 한 조각품이 있다. 이 조각품은 그 수법상 얇은 음각(bas-relief)과 형체조각품(sculpture in the round)으로 가를 수 있는데,⁵⁾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모두가 형체조각품이다. 이 조각품은 「얼굴」형태를 나타낼려는 점에서는 같으나, 그 표현상에는 크게 2가지로 갈라지게 된다. 우선 얼굴의 형태를 표현하는데 눈과 입을 가늘게 옆으로 나타낸 것과, 눈·입을 둥글게 만든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 속하는 예는 제천 점말동굴의 뼈 「얼굴」·대덕 성씨의 선들의 「얼굴」·옥천 안터고인들의 돌 「얼굴」조각품들이고, 후자에는 청원 두루봉동굴의 뼈 「얼굴」·부산 동삼동 조개더미의⁶⁾ 조개 「얼굴」·양평 양근리의 흙단추 「얼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위에 든 예에서 표현수법상에 이와 같은 차이점과 공통점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 해석을 요구하게 된다. 첫째는 중기 구석기시대의 문화로 해석되는 점말동굴·두루봉동굴의 이 예술품들에 대한 예술활동의 기원문제와 그 양태,

둘째는 중기 구석기시대에서부터 구석기 문화기에 있던 표현 방법의 일치에 따른 문화사적 고찰, 셋째는 둥근 눈·입과 가는 눈·입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1960년대까지도 구석기예술은 후기 구석기에 이르러 크로 마농인(Cro-Magnon Man)이 처음 만든 것으로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다가 A. Leroi-Gourhan, F. Bordes, A. Marshack 등의 정력적인 연구로 종래의 해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해석 방법을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한 Leroi-Gourhan⁷⁾·Marshack⁸⁾와 그 기원을 전기 구석기까지로 소급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Bordes⁹⁾의 업적은 구석기 예술에 대한 해석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총체적인 모습을 새롭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와 중기 구석기문화의 새로운 해석이 요구되기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주구점문화가 등장된다.

von Koenigswald가 직립원인(*Homo erectus*)에서 보이는 식인의 흔적을 의식의 일종으로 해석하면서 이제는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따르고 있고,¹⁰⁾ 또한 같은 시기에 있었던 스페인의 Ambrona유적에서도 의식의 일단을 찾게 되었다.¹¹⁾ 이러한 것은 일찌기 J. Maringer가 전기(early) 구석기에서¹²⁾

4) 새끼기(engraving) 그리기(drawing)·색칠하기(painting)·조각품(sculpture)·조소품(modeling)의 방법이 쓰인다(Leakey, L.S.B., 1960. *Adam's Ancestors* 148~50).

5) Leakey, *ibid.*

6) 패총·조개무덤이라고도 부르나, 엄격한 의미로는 「조개더미」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이용조, 1977. <한국고고학의 편년에 대한 한 연구>《韓國史研究》15, 10 주 35 참조).

7) Leroi-Gourhan, A., 1967. *Treasure of Prehistoric Art* (Harry N. Abrams) 참조.

8) Marshack, A., 1970. *Notation dans les Gravures du Paléolithique Supérieur: nouvelles méthodes d'analyse* (Bordeaux: Imprimeries Delmas); 1972. *The Roots of Civilization* (N.Y.: McGraw Hill Book) 참조.

9) Bordes, F., 1972. *A Tale of Two Caves* (N.Y.: Harper and Row) 참조.

10) Shapiro, H.L., 1974. *Peking Man* (N.Y.: Simon and Schuster) 83~84.

11) White, E., 1973. *The First Men* (N.Y.: Time-Life Books) 82.

12) Maringer는 2시기 구분법에 따라 전기·중기를 하나로 묶어서 전기로 하고, 후기를 그대로 인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Maringer, J., 1960. *The Gods of Prehistoric Men*. Tr. by M. Ilford 1~114 참조).

부터 볼 수 있는 「머리숭배 신앙(skull cult)」과¹³⁾ 연결지어진 것이라고 해석된다.

Maringer는 이러한 것은 1) 죽은 사람의 뼈, 특히 머리뼈에 대한 존경 2) 가족원의 외경 3) 수호신으로서의 의미 4) 죽음은 영생으로서의 생존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있다.¹⁴⁾

가족이 죽었을 경우에 정성들여서 묻는 습속은 이미 르 무스뎬에에서 확인된 바이다.¹⁵⁾ 여기에서 죽은 사람의 초상화를 준비하여 그를 기념하면서 살아 있는 가족을 지켜주며 같이 생활하는 면을 이해한다면,¹⁶⁾ 원래의 「머리 숭배신앙」에서 「얼굴숭배」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과정이지 내용의 변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초기에 있었던 머리뼈 숭배는 점차 얼굴을 상징적인 표현방법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혹시 아종(sub-species)의 차이에서 오는 현상인지는 아직은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차이는 예술의 기원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중기 구석기문화를 담당하였던 네안델탈인(*H. sapiens neanderthalensis*)의 뇌용적량(cranial capacity)이 현대인(modern man)의 1370c.c.보다 높은 1470c.c.라는 사실은¹⁷⁾ 그들의 문화적인 창조력이 완전한 인간(man)으로서의 틀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¹⁸⁾

70년대의 구석기학계에 있어서 큰 변화 가운데에 하나는 네인델탈인의 문화양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들이 만든 정교한 연모도¹⁹⁾ 높은 문화를 창조할 수 있던 능력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무덤을 통하여 장례가 있었다는 해석에 멈추지 않고 예술활동까지 있었음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오게 된 것이며,²⁰⁾ 또한 이것은 유적과 유물에서 확인되게 되었다. 즉 불란서 도르도뉴 강변의 Pech de l'Aze II에서 발굴된 황소갈비뼈에 만든 선 그리기(線刻)는 지금까지의 구석기예술에 대한 통념을 바꿔 놓게 하였다.²¹⁾ 30만년전의 전기구석기문화인 아슐리앙문화유물로 인정하고 있기에, 종래의 설을 새로이 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보다 앞에서 Bordes는 미끄귀앙-무스뎬리앙문화의 연모 가운데 새기개에 대한 유형별조사로 그 가능성을 밝히고 있으며,²²⁾ 무스뎬리앙문화기에 있던 액막이 돌(amulet)에 새긴 「+」자 모양에 주의를 하고 있다.²³⁾ 이러한 때에 제천 점말동굴의 제3문화층(표토밀 206~212cm)에서 집승의 얼굴 모양을 만든 예술품이 출토·보고되어 학계에 주목을 끌게 되었

13) Maringer, *ibid.*, 25.

14) *ibid.*, 13~14.

15) *ibid.*, 15. 이러한 습속은 여러곳에서 확인된다(Constable, G., 1973. *The Neanderthals* 105~06).

16) Ucko, P.J., and A. Rosenfeld, 1967. *Paleolithic Cave Art* (London: World Univ. Press) 76; Lopatin, I.A., 1960. "The Cult of the Dead among the Natives of the Amur Basin" *Central Asiatic Studies* 6, 201~02.

17) Tobias, P.V., 1971. *The brain in hominid evolution* (N.Y.: Columbia Univ. Press) 96.

18) H.L. Shapiro가 *Sinanthropus*도 1100c.c.에 이르러 현대인의 작은 뇌크기를 가졌었다는 주장은(1974. *op. cit.*, 121) 문화창조자로서의 인간의 능력과 선사문화해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19) Pfeiffer, J.E., *op. cit.*, 173~95; Grand, P.M., 1967. *Prehistoric Art: Paleolithic Painting and Sculpture* 24.

20) Pfeiffer, *ibid.*, 220; Constable, G., 1973. *op. cit.*, 108~12; Prideaux, T., 1973. *op. cit.*, 95.

21) Bordes, F., 1969. "Os Percé Moustérien et Os Gravé Acheuléen du Pech de l'Aze II" *Quaternaria*, 11, 1~6; 1972. *op. cit.*, 61~62; Marshack, A., 1975. *op. cit.*, 85~87.

22) Bordes, F., 1966. *Typologie du Paleolithique ancien et moyen: Planches* Pub. de l'Institute de Préhistoire de l'Univ. de Bordeaux Memoire No. 1 pls.34~35.

23) Bordes, F., 1968. *The Old Stone Age* 110~11.

다.²⁴⁾ 이 예술품은 지질편년상으로도 중기 홍적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화의 시대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얼굴」을 주제로 하였다는 점에서도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제는 「얼굴」에 나타난 수법과 문화사적 의미의 차이를 살펴 볼 단계에 이르렀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중기 구석기에 벌써 「얼굴」을 주제로 한 예술 활동은 모두 그들이 갖고 있던 장례—의식—민음—종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²⁵⁾ 예술작품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선사인들의 사유(思惟)형태에 따른 표현방법의 해석문제이다. 선사인 자신들이 나타낼려는 대상물의 그 자체를 정확하게 예술로 표현하는 행위로서 본다면,²⁶⁾ 동일한 관점에서 출발되어야 하는데,²⁷⁾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실주의 관점으로 보아야²⁸⁾ 한다고 주장되어 왔다. 그리고 Leroi-Gourhan이 성(性)에 의한 분류의 방법이²⁹⁾ 갖고 있는 객관성과 또한 어린이 그림을 보면 약 6살부터 성을 구분 하여 그린다는³⁰⁾ 사실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성별의 차이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후기 구석기시대에 있던 뷔너스(Venus) 상이나 얇은 음각으로 된 사람의 전체모습은 그 성별을 판별하기가 쉬우나 우리가 다루는 「얼굴」은 아직 그 보고의 예가 있지 아니하다. 이제 방법과 해석의 원칙들이 세워야 할 단계가 된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진 유물가운데 부부를 나타내는 예가 몇개 있다. 이들은 여기에서 다루게 되는 거석문화인 선돌과 그리고 신라시대의 토우 부부상(夫婦像), 고려시대의 하회가면이 그것이다.

선돌에 관하여는 뒤에 각 별로 다루게 될 터이니, 여기에서는 그 특징만을 다루겠다. 할머니 선돌로 위하는 이 선돌에서도 눈을 가늘게 표시하여 다른 예에서 보이는 그 수법과 일치하고 있다.

토우 부부상은 경주 부근에서 출토된 신라초기(古新羅)의 것으로 크기는 남자상이 8.2cm, 여자상 5.3cm가 되는데,³¹⁾ 남자의 「얼굴」은 눈·입을 둥글게, 여자는 가늘게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회 가면은 안동 하회마을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던 것으로 모두 11점이다. 국보 121호로 지정된 오리나무로 만들어진 이 가면들을 보면 양반·선비·백정·중·초랭이·병산탈 甲·乙(7명)은 남자상을 만들기 위하여 눈이 크고 입이 벌어진 상태로 하였으나, 각시·이매·부네·할미 등 4명은 눈·입을 가늘게 옆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썼음을 알겠다.³²⁾

비교적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하회가면을 보면 “가늘게 뜯은 눈, 눈썹 그리고 작은 입으로써 여자를 상징”하였으리³³⁾, “실눈”의 표현은³⁴⁾ 여성에 대한 특징을 지적한 것으로 생각된다.

24) 손보기, 1975. <제천 절말동굴 발굴중간보고> 《韓國史研究》 11, 13~14.

25) 이러한 견해는 이미 Maringer (1960. *op. cit.*, XVii)와 Grand (1967, *op. cit.*, 46), Pfeiffer (1969, *op. cit.*, 434)가 발표하였다.

26) Grand, P.M., 1967. *op. cit.*, 36.

27) *ibid.*, 24.

28) Ucko & Rosenfeld, *op. cit.*, 48;79.

29) Leroi-Gourhan, A., 1967. *op. cit.*; 1968. *op. cit.*; Ucko & Rosenfeld, *op. cit.*, 195~221.

30) 김재은, 1967. 《人物畫에 依한 知能測定》 22.

31) 진홍섭, 1974. 《土器·土偶·瓦塼》 한국미술전집 3, 93; 156; 이난영, 1976. 《신라의 토우》 교양국사총서 22, 도판 40;41.

32) 문화재관리국, 1967. 《文化財大觀：國寶篇》 386~93; 이두현, 1967. <河回 및 屏山假面> 《文化財》 3, 75~92.

33) 김원용, 1973. 《韓國美術史》 改訂增補版, 273.

34) 이두현, <전계논문> 80;84.

더욱이 “다소곳”³⁵⁾한 표정은 이러한 해석과 추론에서 여성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찾게 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선사·역사로 이어지는 문화의 연계위에서 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겠다.

2. 분석적 고찰

이제 각 유물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ㄱ) 구석기 문화의 예

충북 청원 두루봉동굴에서 출토된 이 유물은(사진 1) 사슴의 정강뼈에 만들어진 것이다. (크기 2.7×4.0×1.2cm)

윗 관절부분을 다듬어서 평형을 이루게 하였으며, 눈·입을 뾰족한 새기개로 만들었다. 오른쪽 눈은 2번, 왼쪽 눈을 1번, 입은 여러차례(적어도 5차례) 쪼이기(pecking)방법으로 벌린 상태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눈은 왼쪽 것이 조금 크며 입을 중심으로 보아도 거리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좌우 불균형의 수법을³⁶⁾ 생각해 볼 수 있다. 불룩한 관절부분을 얼굴의 면으로 되도록 하였고, 아랫턱을 둥글면서 길쭉한 형태가 되도록 만들었음이 주목된다. 얼굴의 전체적인 형태는 넓고 높은 것으로 보인다.³⁷⁾ 그래서 우리의 해석으로는 남성을 나타내려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얼굴」을 한 이 유물은 점말동굴의 것과 비교되면서³⁸⁾ 같은 점과 차이점을 들어 내고 있다. 긴 뼈를 재료로 하여 「얼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표현상의 방법으로는 두루봉동굴것이 둥글게 쪼이기를 한 반면에 점말것은 긋기(engraving)방법으로 하여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실눈」을 표시한 점말의 얼굴은 여성으로 보이며, 또한 출토지의 성격으로 보아도 이 해석은 이와같이 해석된다. Leroi-Gourhan의 주장을 빌면 굴의 중앙부분을 여성, 입구·가·끝은 남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데,³⁹⁾점말 것이 굴의 중앙부분에서 출토된 반면에 두루봉 것은 굴의 끝부분에서 나왔기에 이와 같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하여튼 중기 구석기시대로 인정되는 층에서 발굴된 이 2 「얼굴」은 머리뼈와 긴 뼈의 숭배신앙에서⁴⁰⁾ 진화·합일되었다는 점에서 예술의 기원과 유형에 대한 한 의미를 학계에 던지고 있다.

ㄴ) 유문토기 문화의 예

부산 동삼동조개더미에서 출토된 이 얼굴은 큰가리비(*Patinopecten yessoensis*)조개에⁴¹⁾ 쪼이기 방법으로 만들었다. 조개비에 있는 가운데의 깊고 넓은 고랑을 중심으로 하여 적어도 6차례이상의 손

35) 진흥섭, 《전개서》 156.

36) 하회가면의 각시도 이러한 수법으로 만들었것음은(이두현, <전개논문> 8) 주목된다.

37) 예술적인 표현과 실체를 비교하는 것은 어려우나, 우리나라 사람의 얼굴의 특징이 이와같다고 지적한 것은 (나세진, 1964. 《韓國民族의 體質人類學的 研究》《韓國文化史大系 I. 民族·國家史》105참조) 참고가 될 것이다.

38) 1976. 11. 2. <人類的 藝術活動>《京鄉新聞》참조.

39) Ucko & Rosenfeld, *op. cit.*, 205.

40) Maringer, J., *op. cit.*, 35~36.

41) 김원용, 1973. 《原始美術》韓國美術全集 1, 5:72;147.

여기에서는 가리비라고 하였으나, 가리비과(Pectiridae)이고 이것은 속(屬) 이름으로 큰가리비라고 하여야 맞다(유종생, 1976. 《原色 韓國貝類圖鑑》117; pl.25~3 참조).

질로서 등근 2눈을 만들었는데 눈꺼풀을 일부러 둥글게 나타낼려고 한 점이 뚜렷하다. 남성을 나타내는 다른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입을 크게 벌린 모습을 하고 있다.

두루봉동굴의 얼굴에 비하면 눈과 눈 사이를 좁혀서 한 것이 살피지며, 전체적인 인상은 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다. 어린이들의 얼굴을 표현한 것이고 장난감으로 보는 견해도 발표되었으나,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예술품으로 생각되어⁴²⁾이 견해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⁴³⁾ 이 문화의 전체적인 양태는 앞으로 있을 보고서에서 밝혀질 터이나, 투박조개(*Glycymeris albolineata*)와 *Andara broughtonii*로 만들 팔찌와 대추고둥(*Oliva mustelina*)으로 만든 구슬(?) 등과⁴⁴⁾ 연결지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ㄷ) 거석문화의 예

i) 선돌의 「얼굴」

충남 대덕 용계리 성피에 있는 선돌로서 할아버지 선돌과 서로 바라보는 위치에 약 150m 떨어진 거리에 놓여 있다(사진 3, 4). 크기 174×44×61cm

할아버지 선돌은 끝을 뾰족하게 하여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고 있으며,⁴⁵⁾해가 떠오르는 쪽으로 구멍을 만들어서 고인들에 있는 것과 연결지어 거석문화의 한 유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 선돌은 “거리찌 잡숫는 돌”⁴⁶⁾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윗면은 다른 선돌에서와 같이 여성을 나타내는 윗면이 거의 평형을 이루며 할아버지 선돌을 바라보는 면 쪽으로 눈을 옆으로 파서 정말 실눈을 만들었다.

이처럼 이 선돌이 갖고 있는 여성의 의미는 바로 성별의 구분에 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는 면에서 중요하다. 더우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선사시대의 유물인 선돌에 표시한 성(性)의 표현방법과 역사시대의 것이 일치된다는 측면에서 문화의 기저에 흐르는 전통적인 흐름을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유물은 대청댐으로 수몰이 될 것이기에 옮겨야 할 것이다.

ii) 안터고인들의 돌 「얼굴」

충북 옥천 석탄리 안터고인들은 전형적인 탁자모양을 하고 있는 형식의 고인들로서 남북방향으로 유구를 만들었으며, 이것은 물(금강)의 흐름과 일치하고 있다.⁴⁷⁾ 크기 11.2×8.0×2.4cm

북쪽 막음돌 옆 즉 강굽이가 돌아서 오는 쪽으로 이 얼굴이 하늘을 향한 채 출토되었다. 편암자갈

42) Collingwood, R.G., 1974. *The Principles of Art* (London: Oxford Univ. Press) 42~56; Scruton, R., 1974. *Art and Imagination* (London: Methuen) 84~120. 참조.

43) 실제로 만 4세의 어린이 얼굴을 재어보니 15cm, 만 1세의 아기는 14cm나 되어 조가비 크기(11.6cm)로는 상징적인 의미로 밖에 생각되지 아니한다.

44) Sample, L.L., 1974. "Tongsamdong: A Contribution to Korean Neolithic Culture History" *Arctic Anthropology* 11-2, 90~93.

45) 대청댐수몰지역에 있는 선돌 31기를 조사한 결과 거의가 짝을 이루고 있는데, 끝이 뾰족한 것은 남성(즉 할아버지)을, 윗면이 약간 볼록하거나 또는 평형을 이룬 것은 여성(할머니)임을 나타내고 있다

46) 거리찌 (祭)는 음력 정월 개보름날 (14일)밤에 술·떡·안주 등의 제물을 받쳐서 부락제로 새 해의 풍년을 기원한다고 하며, 이 때 이 선돌에 있는 것과 같이 새끼줄을 머리부분으로 되는 쪽에 매어 놓는 습속을 보았다. 이 사진은 1978년 4월 19일 촬영한 것임.

47) 이렇게 고인들이 물과 연결지어지는 예는 여럿이 있다(이용조, 1975. <전개논문> 57, 주 16참조).

들의 불룩한 자갈면에 비벼대기로 만든 홈(abraded grooves)으로⁴⁸⁾ 2눈이 짝이 되도록 하였는데, 오른쪽 눈이 길며 약간 치켜진 모습이다. 입은 쪼오기로 만들어서 약간 벌린 상태이며, 턱은 비벼대기로 홈을 만들어서 강인한 느낌을 들게 하고 있다.⁴⁹⁾

자갈들의 편편한 반대면에 「얼굴」을 만들지 아니하고 약간 불룩한 면에 한 것은 일부러 얼굴의 돌출한 부위를 의식하고서 한 것으로 해석된다.

ㄹ) 무문토기문화의 예

경기도 양평 양근리에서 팔당댐수몰지역조사(연세대학교박물관 발굴)에 밝혀진 것이며, 고운 염토로 빚어 만든 단추이다.⁵⁰⁾ 크기 1.54×1.54×0.22cm

단추 앞면은 불룩하며 2중원의 무늬적개(施文具)로 2눈과 입을 만들었다. 뒷면이 약간 오목한 것을 보면, 이것도 불룩한 면을 의식하고서 손질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해석으로는 남자의 얼굴을 상징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난히 크게 뜯눈과 벌린 입은 이 시기에 있는 권위·권력과 연결지어진 것은 아닌가 한다.

3. 제시되는 해석

지금까지 최근에 밝혀진 5개의 얼굴을 살펴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이 해석된다.

1) 직립원인(*Homo erectus*)의 문화에 있던 「머리숭배신앙(skull cult)」은 머리뼈와 긴 뼈의 숭배가 기본인데, 이것이 긴 뼈에 얼굴을 만드는 전화의 과정이 된 것으로 유추된다. 이러한 전화는 아종(亞種)의 변화에서 오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우리나라에 있는 선사·역사시대의 유물로 보아 얼굴 표현에서 눈을 실눈으로 나타 낸 것은 여성을 표시한 것이고, 둥근 눈은 남성을 상징하고 있는 수법이 쓰이고 있다.

3) 이러한 해석위에서 지금까지 살펴 본 자료는 아래와 같은 분류표가 만들어진다.

문 화	성 별	남	성	여	성
구 석 기		청원—두루봉동굴		제천—점말동굴	
신 석 기		부산—동삼동조개더미			
거 석 문 화				대덕—성외선돌 옥천—안터고인돌	
무 문 토 기		양평—양근리			

4) 구석기—신석기—거석문화—무문토기로 이루어지는 표현상의 같은 수법은 역사시대에도 전승된다.

48) 이 얼굴을 여성으로 볼 경우에 여기에 문헌 사람의 성별도 연결지어서 생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 문제는 다음에 따로 살펴 보겠다.

50) 손보기·이용조, 1974. <양평군 양근리지역·양덕리지역유적 발굴보고> 《八堂·昭陽댐 水沒地區遺蹟發掘 綜合調查報告》 141;145.

이러한 해석에서 보면 선사 즉 원시라는 통념은 바로 잡아야 될 것이다.⁵¹⁾ 또한 선사문화에 역사시대에 이어지는 훌륭한 미적감각과 수준을 갖고 있었다는 해석이 내려질 수 있다.⁵²⁾

5) 구석기문화에는 집자리와 무덤의 구별이 없이 같이 있었던 문화양태이기에 집자리인 동굴에서, 무덤과 집자리가 따로 떨어진 후빙기이후의 문화에서는 무덤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이 「얼굴」은 죽은 사람을 위한 생각에서 쓰이었다. 이것은 의식과 연결지어지며 중기 구석기문화이전에 이미 종교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6) 선사인들의 사유(思惟)형태에서 가장 가까운 상대는 역시 인간이었고, 이 인간이 생활-의식의 연결로서 가장 오래 된 미의 대상이었고, 이 때는 경외의 미이었음을 알 수 있다.

7) 이 「얼굴」의 보고는 종래의 구석기 문화해석에 새로운 한 기준을 제시한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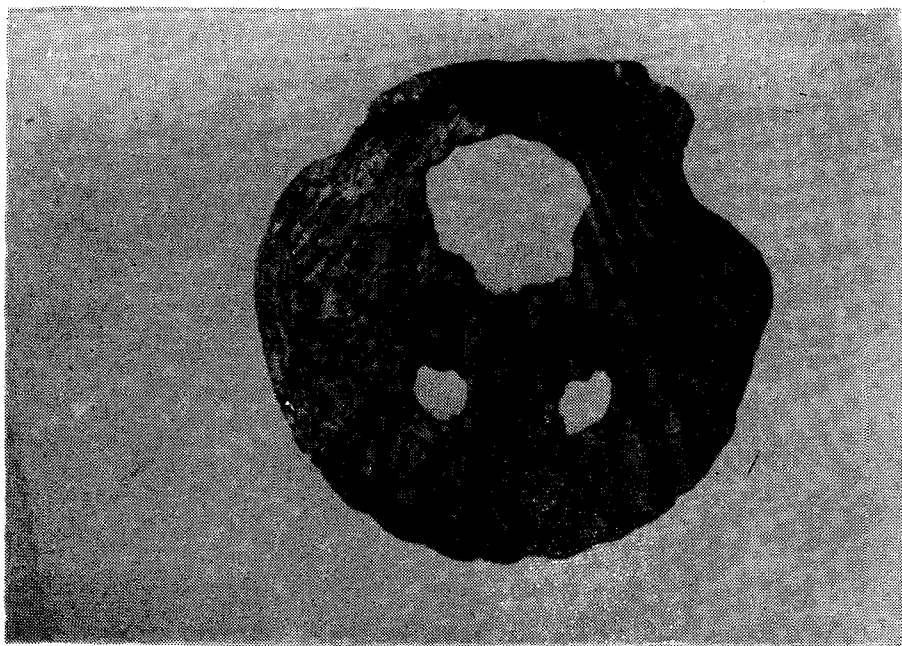
8) 같은 수법상의 표현은 우리 민족의 기원에 대한 문제까지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즉 역사적으로 이어지는 문화상(文化相)의 연계는 이것이 가장 밑 층에 흐르는 의식의 표현일 경우, 현재의 우리 민족과 연관있는 집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51) 이 문제에 관하여는 이용조, 1977. <先史와 原始> 《현상과 인식》 3, 204~06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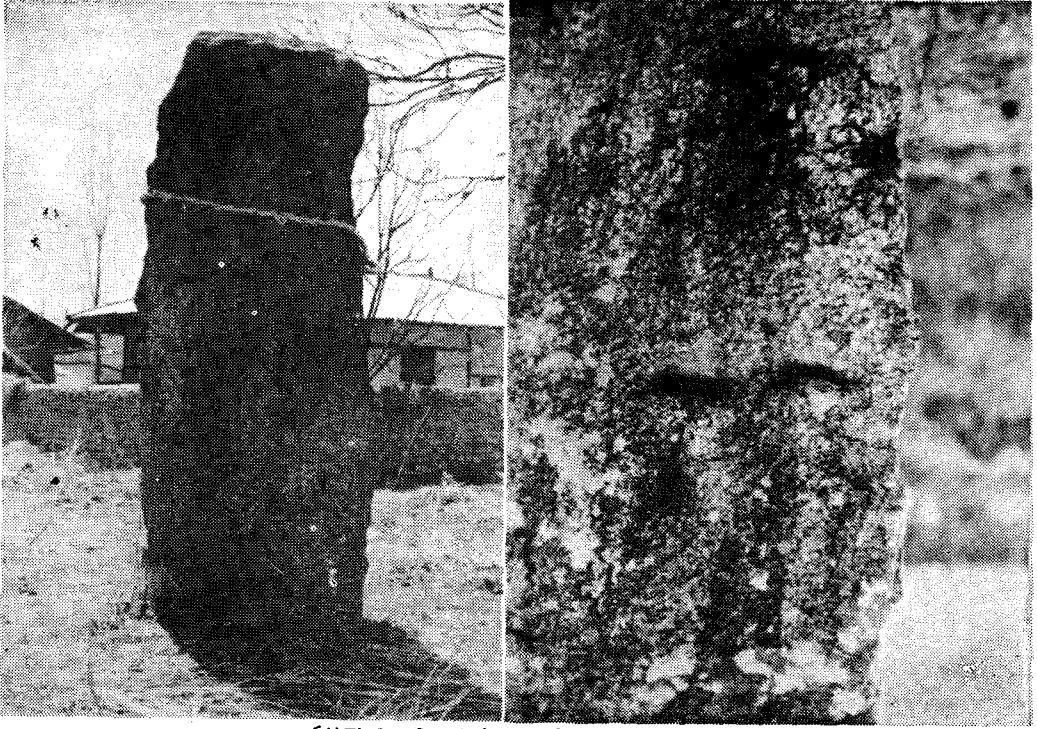
52) Maringer, *op. cit.*, 26:36~37.



[사진 1] 두루봉동굴의 「얼굴」



[사진 2] 동삼동조개더미의 「얼굴」



[사진 3, 4] 성외 선돌의 「얼굴」과 부분



[사진 5] 안터 고인돌의 「얼굴」